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쉼 권리’가 필요합니다!

이미숙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위원장

2025년 4월 24일, 반월공단의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1층에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공동휴게실 1호점이 문을 열었다. 노동자에게 ‘쉼 권리’가 당연한 권리임을 이야기하며 꾸준히 노력해 온 지난 4년간의 활동이 구체적 공간으로 실현된 것이다. 그러나 이 공간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아직도 수많은 공단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쉼 공간’은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작업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자들

2021년, 월담노조는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휴게권 실태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33.3%는 회사 내에 휴게공간은 물론이고 탈의실조차 없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71.9%의 응답자가 쉬는 시간에도 작업장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휴게실이 없다고 답한 이들은 물론이고, 있다고 해도 쉴 만한 공간이 아니어서 작업장 한편에 제품 박스나 스티로폼 등을 깔고 쉬거나 회사 근처 공터나 도로변, 차 안, 심지어 화장실까지 휴식 공간으로 활용했다. 이처럼 ‘쉼 권리’는 그저 불편한 현실이거나, 딱히 권리로서 주장하기 힘든,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월담노조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터에 쉼표’ 캠페인을 진행했다. 노동자의 쉼이 단순한 배려나 편의가 아닌 건강하게 일할 권리임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쉬는 공간 사진 찍어 보내기’, ‘휴게실 점수 매기기’, ‘길 위에 쉼터’ 설치 등 노동자의 참여를 끌어내는 실천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쉼 권리에 대해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갔다. 또한 다양한 언론 기고와 기자회견, 쉬는 공간 사진 전시회를 통해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안산시와 시흥시 등 지자체와의 면담을 통



▲ 2022.10.26.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휴게권 보장과 공동휴게실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진: 월담노조

해 공동휴게실 설치를 위한 정책 논의를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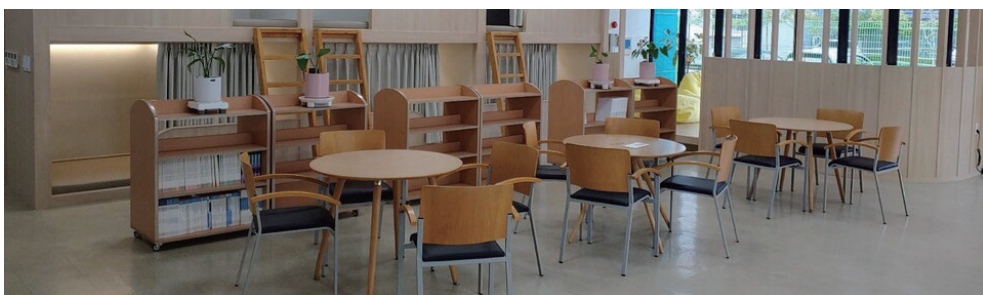
쉽음 '권리'다 - '일터에 쉽표'

2022년에는 지역 단체들과 함께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공동사업단(이하 공동사업단)'을 구성하면서 사업 내용을 더욱 구체화해나갔다. 민주노총 안산지부,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산업단지복지관, 시화노동정책연구소 등과 함께 지역 기반의 공동 대응 체계를 만든 것이다. 실태조사, 휴게공간 사진전, 토론회를 통해 여론을 형성했고, 정책적 대안도 구체화했다. 특히 2023년에는 공단 내 지식산업센터 및 작은 사업장 사용자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동휴게실에 대한 실제 수요를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안산시에 2025년 공동휴게실 설치 예산확보를 요구했고, 마침내 올해 1호 점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사실 월담노조가 구상한 공동휴게실의 모습은 크고 화려한 시설이 아니다. 최신 설비가 갖춰진 고급 휴게실도 아니다. 작업 중간 또는 점심을 먹고 난 후 주어진 잠깐의 휴식 시간에, 사업장 근처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작지만 가깝고,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쉽의 공간이었다. 공단의 구석구석, 버스정류장 옆, 식당 근처, 아파트형 공장 틈틈이 훑훑하게 마련된 공간. 이것이 월담노조가 바라는 공동휴게실의 진짜 모습이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몸을 뉘 수 있는 그런 공간 말이다.

쉽 권리는 곧 건강하게 일할 권리

'쉽 권리'는 단순히 피로를 덜기 위해 받는 배려가 아닌,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의 핵심 요소다.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환경은 근골격계 질환, 스트레스, 사고 위험 증가 등 수많은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 쉬지 못하는 일터는 결국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터가 된다. 따라서 휴게공간은 단지 '편의시설'이 아니라, 일터의 안전과 노동자의



▲ 안산시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1층 로비 공간에 작은사업장 노동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동휴게실 '누구나 쉼터'가 마련됐다. 사진 : 노동과세계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쉴 권리’는 곧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 3년을 맞이하는 지금, 현장에는 여전히 제대로 된 쉼이 보장되지 않는 곳이 태반이다. 법이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만큼, 쉬는 ‘공간’에 대한 보장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전히 부차적인 일, 사용자의 선의에 의존해야 하는 일로 치부되고 있다.

작은 사업장의 열악한 환경을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다”, “영세하니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 돌아온다. 그러나 이 말이 계속 반복된다면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휴게권은 영영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물어야 한다. ‘쉴 수 없는 노동’은 과연 정당한가. 휴게시간에 정해진 공간 하나 없이 작업장 구석을 전전해야 하는 현실이 과연 정상인가.

공동휴게실 1호점, 쉼의 첫 발걸음

공동사업단을 통해 지난 몇 년간 꾸준한 활동을 한 결과 ‘공단 노동자에게도 휴게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리고 공단 내 일부 사용자들도 휴게공간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그 공감대를 더 많은 실천으로 연결해 내는 것이 지금의 과제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공간을 확보하며,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그 일은 절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미 한 걸음을 디뎠기 때문이다.

월담노조는 앞으로도 ‘일터에 쉼표’를 찍는 실천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쉼은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이자 인간다운 삶의 필수 전제다. 이 권리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공동휴게실 1호점이 그 시작을 알렸다면, 이제는 2호점, 3호점으로 이어져야 할 때다. 공단 곳곳에 모든 노동자의 쉼이 가능해지는 그 날까지 뚜벅뚜벅 걸어가자. 